

특집논문4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과 복지: 한국 개신교 공간의 변영복음을 중심으로

이진구

I.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던 중년층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고용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이 급증하였다. 평생직장이나 종신고용과 같은 전통적 개념은 사라지고 구조조정이나 노동유연성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유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경쟁과 시장 논리를 지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힘과 영향력이 확대되어 갈 때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안전망의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기인하는 대량실업과 빈곤,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자칫하면 심각한 폭력사태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¹⁾ 사회의 기반이 붕괴되면 신자유주의가 시도하는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4대보험의 전면적 확대와 같은 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이 실

1)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IMF 사태와 관련하여 폭동이 일어났다. <인도네시아 소요 확산 원인, IMF 요구로 유가 올리지 못한 폭발>, 《매일경제》, 1998.5.7.

시된 것은 이 때문이다.

IMF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 등장한 또 하나의 풍경은 자기계발 담론의 급부상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세일즈맨이나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 처세술이나 성공학 관련 자기계발서가 읽혔지만²⁾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세대와 계층, 성별을 떠나 자기계발서가 출판시장을 석권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³⁾에서부터 《아침형 인간》⁴⁾에 이르기까지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를 독점했던 것이다.

이처럼 IMF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복지, 자기계발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세 용어가 동시에 출현한 맥락은 무엇이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종교 특히 개신교 공간⁵⁾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동안 종교와 신자유주의의 관계,⁶⁾ ‘종교(사회)복지’⁷⁾ 혹은 ‘영적 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복지의 관계,⁸⁾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교와 자기계발의 관계⁹⁾에 대해서는 나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신교와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회사회복지’ 혹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이름하에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¹⁰⁾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복지, 자기계발이 교차하면서 개신교 공간에서 만들어 내는 독특한 효과와 의미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외환위기 이

2) 정해운, 《성공학의 역사》, 실림, 2004.

3) Robert T. Kiyosaki, Sharon L. Lechter, *Rich dad poor dad: What the Rich Teach Their Kids about Money*, Warner Business Books, 1997;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형선호 옮김, 황금가지, 2000.

4) 稅所弘, 《100日で「朝型人間」になれる方法》,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최현숙 옮김, 한스미디어, 2003.

5) 본 논문에서 ‘개신교 공간’은 담론과 실천의 측면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반면, ‘개신교(계)’는 제도적 측면이 강조된 표현이다.

6) 장석만, 〈신자유주의와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 13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8, 13-34쪽.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교를 묻는다》, 청년사, 2011.

7) 이 글에서는 ‘복지와 사회복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용한다.

8) 이혜수 편저, 《종교사회복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윤용복, 〈사회복지영역에서의 국가와 종교〉,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9.; 고병철,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호, 종교문화비평학회, 2011.; 권경인 외,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지원》, 신정, 2011.; 안신, 〈종교복지실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종교연구》 73호, 한국종교학회, 2013.; 전명수, 《좋은 사회로 가는 길: 종교·시민사회·공공성》, 집문당, 2018.

9) 이숙진,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 담론: 여성교인의 주체화양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호, 한국종교학회, 2010, 119-148쪽.; 이정연, 〈1990년대 강남문화와 상류층의 ‘신성적 자기계발론’: 강남 상류층 교회의 신념(belief) 분석〉, 《사회와 역사》 123호, 한국사회사학회, 2019, 209-255쪽.

10) 박효진, 〈논문 분석을 통한 교회사회복지의 연구동향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1호,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3, 71-94쪽.; 박종삼, 〈근현대 기독교의 사회복지 발전〉,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제6집, 2018, 64-90쪽.

후 우리사회의 성격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이 셋의 관계를 개신교 공간을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운반자로 등장한 자기계발 담론에 주목하면서 개신교와 복지의 관계를 검토하는 우회 작업을 시도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자기계발 담론의 하나로 등장한 '번영복음(prosperity gospel)'이 개신교의 복지 인식 및 태도에 미친 효과와 의미를 검토하는데 주력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는 '번영복음'과 '복지'에 대해 잠정적 정의를 해 둔다. 번영복음은 '육체적 건강, 물질적 풍요, 사회적 성공과 같은 현세적 가치를 신의 축복(blessing)으로 여기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 중심의 신앙'이며,¹¹⁾ 복지(social welfare)는 '질병, 빈곤,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사회정이나 연대성의 원리로 접근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다.

논의의 순서는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속도를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탄생과 자기계발 담론을 중심으로 먼저 살핀다. 이어서 개신교 공간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번영복음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살피고, 번영복음이 개신교의 사회복지 인식과 실천에 미친 효과와 의미를 분석한다.

Ⅱ.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탄생과 자기계발의 일상화

1.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11) 번영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Kate Bowler, *Blessed: A History of the American Prosperity Gosp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서구 사회의 경우 20세기 초반 특히 2차대전 이후 냉전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와 경쟁하면서 복지국가로 탄생하였다. 각국의 역사적 경로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크게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유럽 대륙의 보수주의(혹은 조합주의), 영미의 자유주의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¹²⁾

이러한 3분법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둘러싸고 열린 논쟁을 벌이고 있다.¹³⁾ 여기서는 복잡한 논쟁에 개입하는 대신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등장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군정과 자유당 정권에서도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나 복지정책은 거의 없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복지정책이 등장했지만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 정책 때문에 그 효력은 미미했다. 제한된 범위의 의료보험이나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초보적 형태의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을 뿐이다.¹⁵⁾ 전두환 정권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구호로 내세웠지만 정권의 도덕적 취약성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웠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에서 복지 관련 제도가 좀 더 정비되었지만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의 문턱에 접어든 것은 IMF 사태를 겪은 ‘국민의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이다. 김대중 정부가 복지국가로 방향을 튼 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축적된 노동계나 시민사회계의 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IMF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IMF는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의해 사회적

12) Gosta Esping-Anderson,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UK: Polity Press, 1990; 박형신 외 옮김, 일신사, 2006; 조홍식 외, 《사회복지개론》(개정4판), 나눔, 2015, 464-465쪽.

13)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2002; 정무권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2009.

14) 이는 재미 인류학자 송제숙의 관점과 용어를 따른 것이다. Song, Jesook, *South Koreans in the Debt Crisis: The Creation of a Neoliberal Welfare Society*, Duke University Press, 2009.; 송제숙, 《복지의 배신》, 추선영 옮김, 이후, 2016.

15) 박정희 정권 시기의 복지체제에 대해서는 정용택, 《그들이 교회로 간 까닭은? 박정희 정권기 한국 복지 체제 형성 과정에서 도시 교회의 역할과 기능》, 《당신들의 신국: 한국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돌베개, 2017, 133-189쪽.

위험에 처하게 될 사회집단이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도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¹⁶⁾

그렇지만 IMF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대행자이므로 IMF의 압력하에 있던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시장, 산업, 노동인구를 창출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국민 즉 고용 가능성이나 재할 능력, 노동 유연성 같은 신자유주의적 기준에 합당한 인물이 훌륭한 시민이라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복지는 '가치 있는' 노동 인구의 재생산 수단이었다.¹⁷⁾

'생산적 복지' 혹은 '노동복지(workfare)'로 불리는 이러한 제도는 최저 비용으로 복지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통치하는 신자유주의 통치 형태의 전형이다.¹⁸⁾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수립된 복지국가는 일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복지 제도를 모델로 삼음으로써 경제적 실리가 최우선임을 확인시켰다. 노동복지 제도에서는 까다로운 연금제도와 소득조사를 통한 생활보호 등급제도, 그리고 노동인구의 취업 가능성과 유연성을 촉진함으로써 복지비용이 최소화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복지국가임을 선포한 초기부터 복지는 노동복지로 개념화되었다.¹⁹⁾

이후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등 복지정책의 슬로건과 기조는 바뀌어 갔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²⁰⁾ 요컨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신자유주의가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는 신자유주의적

16) 신광영,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경제와 사회》 95호, 한울엠플러스, 2012, 40쪽.

17) 송제숙, 앞의 책, 55쪽.

18) '노동연계복지' 혹은 '근로연계복지'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조흥식 외, 앞의 책, 19쪽.

19) 송제숙, 앞의 책, 82-83쪽.

20)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복지국가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2. 자기계발의 일상화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산물인 생산적 복지 혹은 노동복지와 조용하면서 등장한 현상이 자기계발 붐이다. 1980년대 후반에도 자율성, 창의성, 개성, 시민의 권리, 인권처럼 자유로운 개인을 묘사하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지만 당시에 등장한 용어들은 군사정권 시대의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적 의미의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었다. IMF 이후에 등장한 자기계발 담론은 자유로운 자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기관리’와 ‘자기혁신’에 초점을 두었다.

자기관리나 자기혁신이 핵심 수사로 등장한 배경에는 물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혹독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안심리가 깔려 있었다. IMF 구제금융 시기에는 거리의 노숙자, 파괴되는 가정, ‘이태백’으로 상징되는 대량 청년실업, 자살하는 명퇴자 등의 이미지가 미디어에 의해 생생하게 재현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경제적 능력의 상실은 비참이라는 등식을 새겨놓았다.²¹⁾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국가와 사회가 생존을 위한 안전망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기규율을 통한 자유로운 자아의 적극적 육성이 노동시장, 기업, 산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법으로 적극 제시되었다.²²⁾ 청년 세대는 높은 토익점수, 높은 학점, 각종 연수경력과 같은 ‘스펙’을 통해 스스로를 경쟁력 있는 노동력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고용 상태의 청년 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

21) 정정훈, <보장자신? 원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거든>, 《뉴스앤조이》, 2007.2.14.

22) 송재숙, 앞의 책, 250쪽.

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한 신체 가꾸기, 프랭클린 플래너와 같은 일정 관리 도구의 사용,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자기 이미지의 구축, 인터넷의 효율적 활용, 글로벌문화의 체험과 같은 다양한 역량개발 방법을 시도하였다.

자기계발 담론의 핵심적 서사 구조는 자신의 삶을 사업이나 기업으로 대상화 하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기업가로 주체화하는 것이다. 즉 자기계발 담론은 자아를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적 자아'로 만드는 자기지배의 테크놀로지이자 권력이다.²³⁾ 외환위기 이후 '신지식인'을 비롯하여 '1인기업가'나 '창업정신' 등의 용어가 유행하고 벤처 열풍이 분 것은 이러한 자기계발 담론의 효과이다.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²⁴⁾나 《익숙한 것과의 결별》²⁵⁾과 같은 자기계발서가 서점가를 강타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시크릿》이나 《연금술사》와 같은 책도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장악했다. 이 서적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시크릿》의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한 '비밀'을 배우게 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고 쓰고 있다.²⁶⁾ 《연금술사》는 소설이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 소망을 도와준다'는 구절을 통해 자기계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²⁷⁾ 요컨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긍정적 시선과 열정을 지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의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형 인간》으로 대변되는 서적들이 '윤리적 자기계발서'라면 《시크릿》으로 대변되는 서적들은 '신비적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다.²⁸⁾ 전자는 근면이나 절제

23)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13.

24) 공병호,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북21, 2002; 공병호, 《(공병호의) 10대를 위한 자기경영노트: 성공을 준비하는 10대를 위한 자기계발서》, 김영사, 2005.

25) 구본형,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생각의 나무, 1998.

26) Rhonda Byrne, *The Secret, TS Produc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2006; 《시크릿》, 김우열 옮김, 살림출판사, 2007, 12쪽.

27) Paulo Coelho, *O Alquimista*, 1988; 《연금술사》, 최정수 옮김, 문학동네, 2001, 47-48쪽.

28)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 자기계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북바이북, 2013, 29-66쪽.

와 같은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여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기업가적 자아상에 도달하려고 하는 반면, 후자는 우주의 법칙이나 원리와 같은 '비밀'을 파악하여 자신의 욕망이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물질적 부나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자기계발서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복지체제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이고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사회보장 인프라가 취약하다.²⁹⁾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복지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계발 담론은 성공과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회구조의 문제는 은폐되고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은 강화된다.

Ⅲ. 개신교 공간의 자기계발 담론: 번영복음

외환위기 이후 자기계발 서적이 범람하는 가운데 종교적 자기계발서로 분류될 수 있는 서적도 많이 등장했다. 그중 기독교 자기계발서로서 열풍을 일으키면서 널리 읽힌 것으로는 《아메스의 기도》(2001), 《긍정의 힘》(2005), 《4차원의 영성》(2004), 《왕의 재정》(2014)이 있다. 앞의 두 권은 미국에서 먼저 나온 후에 국내에서 번역된 것이고, 뒤의 두 권은 국내 저자에 의해 저술된 것이다. 수많은 기독교 자기계발서 중 이 네 권을 선정한 것은 이 책들이 번영복음의 대변자로서 기독교 출

29) 앞서 언급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의하면 미국은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지만,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부를 수도 있다. 한편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한국을 자유주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조영훈,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김연명 편, 앞의 책(2002), 243-271쪽.

관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컸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³⁰⁾ 그러면 이 책들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개신교의 복지인식과 태도에 미친 효과를 살펴볼 수도 하자.

1. 《아베스의 기도》³¹⁾

2000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수백만 권이 팔리면서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이 책은 국내에서도 번역과 동시에 기독교 출판계를 석권하였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을 위한 각각의 버전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³²⁾ 아베스 기도 책자, 아베스 기도 스킵, 아베스 책갈피, 아베스 복음성가 등의 파생상품도 출현했다. ‘아베스 산업’의 출현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³³⁾

저자 브루스 윌킨슨은 성서 교육 및 선교 기관에서 오래 활동해 온 기독교 목사이다.³⁴⁾ 책의 제목인 ‘아베스의 기도’는 구약성서 〈역대(상)〉에 등장하는 짧은 기도문으로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평신도는 물론 목회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저자가 이 기도문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해설서를 쓴 것이 이 책이다. 성서에 들어 있는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30) 박명철, 〈교회 출판사 편집자들이 보는 〈아베스의 기도〉와 한국교회〉, 《뉴스앤조이》, 2001.10.5; 〈공정의 힘 쓴 미국 목사, 최고 원료 기록 세울 듯〉, 《뉴스앤조이》, 2006.3.17.; 〈2015년 기독교 베스트셀러 분석, 왕의 재장 1위〉, 《한국기독교공보》, 2016.1.5.; 박득훈, 〈돈에서 해방된 기독교〉, 포이에마, 2014.; 권수경, 〈번영복음의 속임수: 번영복음에 대한 성경적, 철학적 비판〉, SFC, 2019.; 이외에도 기독교 자기계발서로 널리 읽혔던 대표적인 책으로는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2;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옮김, 디모데, 2003 등이 있다.

31) Bruce H. Wilkinson, *The Prayer of Jabez: Break Through to the Blessed Life*, Multnomah Publishers, Inc, 2000; 《아베스의 기도》, 마영레 옮김, 디모데, 2001.

32) 《꿈을 주는 아베스의 기도》, 《다시 쓰는 아베스의 기도》, 《묵상을 위한 아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아베스의 기도》, 《하렙전 어린이를 위한 아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아베스의 기도》, 《여성을 위한 아베스의 기도》, 《아베스의 축복원리》 등이다.

33)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IVP, 2003, 90쪽.

34) 노스이스턴성경대학(Northeastern Bible College), 댈러스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 서부보수침례교신학교(Western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를 졸업했고 ‘Walk Thru the Bible Ministries’의 창설자이다. <https://brucewilkinson.com/about-bruce-wilkinson/>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던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³⁵⁾

요약하자면 야베스가 지경(영토)의 확장과 근심(환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성서의 다른 곳에 야베스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본문만으로는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고 이 기도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윌킨슨은 이 책을 통해 자기 나름의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³⁶⁾

먼저 윌킨슨에 의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의 소유자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다. 그가 사례로 든 ‘천국에 간 존 이야기’에 의하면 존이라는 사람이 죽은 뒤 천국에 가서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상자를 열어 보았는데 그 속에는 그가 지상에서 살 때 매우 갖고 싶었던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지상에서 살 때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⁷⁾ 인간이 먼저 요청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자신의 체험담도 소개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연착시켜 하마터면 놓칠 뻔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³⁸⁾ 이러한

35) <역대상> 4:9-10.

36) 브루스 윌킨슨의 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재해석한 것으로는 김홍만,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 생명의 말씀사, 2003>; 김선중, <야베스의 기도 재고>, <Canon&Culture> 9(2),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5, 185-211쪽 참조.

37) 브루스 윌킨슨, 앞의 책, 92쪽.

38) 위의 책, 124쪽.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가 성서적 전거로 제시하는 구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태복음 7:7)”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함이요(야고보 4:2)”다.³⁹⁾ 이 책에는 “하나님을 지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강청기도’⁴⁰⁾의 논리도 엿보인다.

그러면 이 기도문에서 등장하는 복은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인가? ‘지경의 확장’이라는 말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지경은 “재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자기 소유의 터”인데 아베스는 그 터를 늘려달라고 기도했다. 따라서 만일 아베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다.⁴¹⁾ 나아가 이 책은 지경의 확장에 대한 간구를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기도로 해석한다.⁴²⁾ 따라서 크리스천 경영자라면 사업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처럼 이 책에서 복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자는 30년 동안 매일 ‘아베스의 기도’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도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책의 독자들에게도 ‘아베스의 기도’를 강권하고 있다.⁴³⁾ 나아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하면서 아베스의 기도의 일상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한다.

1. 매일 아침 아베스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준비한 달력이나 도표에 기도한 것을 표시하라.
2. 아베스의 기도를 적어서 성경책이나 수첩 안에 그리고 화장실 거울이나 그

39) 위의 책, 40쪽.

40) 강청기도에 대해서는 강준민, 《강청 기도의 능력》, 두란노, 2002, 68쪽.

41) 브루스 윌킨슨, 앞의 책, 47쪽.

42) 위의 책, 45-46쪽.

43) 위의 책, 43쪽

밖의 다른 곳에 붙여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새로운 비전을 되새겨 보라.

3. 다음 한달 동안 이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읽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놓친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라.
4. 당신의 새로운 기도 습관에 대한 결심을 다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실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라.
5. 당신의 삶속에 나타나는 변화들, 특히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시는 만남이나 야베스의 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새롭게 주어진 기회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하라.
6.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라.⁴⁴⁾

요컨대 눈에 잘 띄는 곳에 야베스의 기도문을 걸어 놓고 매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도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자기변화를 위한 일종의 ‘자기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elf)’이다.

저자는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캐딜락이나 거액의 수입과 같은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서 인기를 끄는 종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⁴⁵⁾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잠언 10:22)를 핵심 근거로 복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잘 나타나듯이 이 책은 물질적 부를 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변영복음에 속한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다는 무수한 독자들의 반응에서도 이러한 점은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이 기도를 통

44) 위의 책, 136-137쪽.

45) 위의 책, 36쪽.; 이 책이 변영복음에 속한다는 비판이 일자. (야베스의 기도, 그후)라는 책을 지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신앙이나 이기적 기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Bruce Wilkinson, *Beyond Jabez*, Multnomah Publishers, Inc. 2005. (야베스의 기도, 그 후), 마영래 옮김, 디모데, 2005.

해 회사의 이윤이 증대했다는 사업가의 간증에서부터 남자 친구를 얻었다는 독신 여성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격의 간증이 줄을 이었다.⁴⁶⁾ 심지어 아베스의 방패 기도를 복권 위에 올려놓으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선전문을 실은 잡지도 등장했다.⁴⁷⁾ 국내에서도 수많은 집회와 예배, 설교에서 아베스의 기도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교인들의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위한 존재로 소환되고 아베스의 기도는 그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테크놀로지로 활용된다.

윌킨슨이 제시한 기도 매뉴얼의 마지막 부분에 가족과 친구, 교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보장 인프라의 구축이나 공공복지의 확대와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아베스의 기도는 기도하는 주체의 물질적 부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초자연적 은혜와 기적을 불러내는 도구이다.⁴⁸⁾ 이처럼 《아베스의 기도》는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복지’보다는 경쟁의 원리에 근거한 ‘복’의 추구에 주력함으로써 개신교의 복지의식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2. 《긍정의 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지닌레이크우드교회의 담임목사 조엘 오스틴이 저술한 이 책 역시 수백 만 권이나 팔린 밀리언셀러다.⁴⁹⁾ 또한 《아베스의 기도》

46) Laurie Goodstein, "A Book Spreads the Word: Prayer for Prosperity Works," *The New York Times*, May 8, 2001.

47) 브루스 윌킨슨, 앞의 책(2005), 53쪽.

48) 아베스의 기도를 일종의 만트라(mantra)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Dick Kuffel, "Book Review: The Prayer of Jabez," *Critical Issues Commentary*, Issue 72, September/October, 2002.

49) Joel Osteen, *Your Best Life Now: 7 Steps to Living at Your Full Potential*, New York: Warner Faith, 2004;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두란노, 2005.

처럼 이 책도 《긍정의 힘: 실천편》을 비롯한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었고,⁵⁰⁾ 국내에서 번역판이 나오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국내 개신교의 지도급 인사들이 추천사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 책의 파급력은 더욱 확대되었다.⁵¹⁾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각자가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의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비전을 키우라 2)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라 3)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4)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5)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아라 6)베푸는 삶을 살라 7)행복하기를 선택하라.

위에서 제시한 일곱 단계를 꾸준히 밟으면 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 단계라고 표현했지만 논리적 일관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각 단계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점과 사례만 달리하여 변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일곱 단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ing)’다.⁵²⁾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는 일체의 생각과 말을 멀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만의 비전과 자아상을 키우라는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을 궁극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베스의 기도》처럼 이 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존재임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한다.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차고 넘치는 복”을 예비해 놓았고 그의 자녀가 영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 크게 기뻐한다. 따라서 “막대한 부와 승진의 기회”는 복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

50) 《긍정의 힘: 실천편》, 《긍정의 힘 365》, 《긍정의 힘: 축복편》, 《긍정의 힘: 성공편》, 《긍정의 힘: 성경공부》, 《긍정의 힘: 묵상편》, 《청소년 긍정의 힘》, 《긍정의 힘 FOR MOMS》 등이다.

51) 대형교회의 목사들을 비롯하여 기독교 대학의 총장, 선교단체 대표 등 16명이나 된다.

52) 조엘 오스틴, 앞의 책(2005), 320쪽.

복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베스의 기도》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복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말의 내용이 생명을 얻는데 이것이 ‘영적 원리 (spiritual principle)’다.⁵³⁾

이러한 영적 원리를 실천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그가 공영방송국에서 황금 시간대를 얻기 위하여 시도했던 방식이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열 수 없다고 말했던 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방송국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⁵⁴⁾

위와 같은 말을 날마다 선포한 후 실제로 공영방송국의 황금 시간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이루어진 듯이 행동하라”는 지침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너희가 청한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⁵⁵⁾라는 성서 본문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형 대신에 ‘나는 이미 개그맨이다’ 혹은 ‘나는 이미 금연가다’와 같은 과거형 문장으로 선언해야 한다. 요컨대 복 받을 줄 믿고, 이미 복 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미 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그는 현대 의학으

53) 위의 책, 153쪽.

54) 위의 책, 64쪽.

5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1서 5:15)

56) 위의 책, 101-102쪽.

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생각과 말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장한다.⁵⁷⁾

《아베스의 기도》처럼 이 책에서도 일곱 단계 중 제6단계가 ‘베푸는 삶을 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장식용으로 보인다. 마지막인 7단계에서 복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이는레이크우드교회의 신자인 필리스(Phyllis)의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16세에 임신하여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사회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야 말겠어”라고 다짐한 뒤 복지시설에서 나와 그 시설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⁵⁸⁾ 이 이야기는 복지시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의 필요성보다는 복을 누리겠다는 개인의 신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긍정의 힘》은 물질적 복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얻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추구에서 《아베스의 기도》를 넘어 서고 있다. 좀 더 노골적인 욕망의 표출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자기 테크놀로지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번영복음에 속한다. 따라서 ‘베푸는 삶을 살라’는 구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복’에 대한 욕망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압도한다. 그러므로 이 책 역시 개신교인의 복지 의식을 약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충실한 운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3. 《4차원의 영성》⁵⁹⁾

57) 위의 책, 149쪽.

58) 위의 책, 40-42쪽.

59) 조용기,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교회성장연구소, 2004.; 이 책은 저자가 1996년에 저술한 《4차원의 영적 세계》(서울말씀사의 ‘적용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그 전에 영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다. Cho, Paul Yonggi, *The Fourth Dimension*, So, Plainfield, NJ: Bridge Publishing, Inc., 1979.

이 책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사 조용기가 은퇴를 4년 앞두고 저술한 책으로서 그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 출간과 즉시 베스트셀러의 지위에 올랐으며 한국 개신교의 주요 지도자들이 추천사를 썼다.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원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4차원에 속하는 영적 세계가 3차원에 속하는 육신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적 세계에 속하는 4차원의 신앙을 통해 3차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47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안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된다’, ‘성도는 모여온다’,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3차원에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회는 늘 제가 마음에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믿음 대로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⁶⁰⁾

요컨대 ‘생각과 믿음의 힘’에 의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매일 생각하라고 신자들에게 권유한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병 고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영생복락을 누린 사람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⁶¹⁾

60) 조용기, 앞의 책(2004), 40쪽.

61) 위의 책, 79쪽.

이 내용은 순복음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인 '5중복음'과 '3중축복'이다. 앞의 다섯 문장이 5중복음(중생, 성령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고, 마지막 문장이 3중축복(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다.⁶²⁾ 이처럼 4차원을 승리와 성공과 부요와 축복으로 채워 넣으면 3차원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다.⁶³⁾ 이 책의 속표지에는 4차원 영성의 4가지 변화(생각, 믿음, 꿈, 말)의 실행력을 높여 주기 위한 도구로서 실행점검표가 부착되어 있다.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한 주에 한 가지의 지침을 실천하고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실행 여부를 표시(○ △ ×)⁶⁴⁾해야 한다. 이것은 4개월용이기 때문에 4개월 이후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점검표를 절취하여 성경이나 다이어리 등에 넣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점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생각을 바꾸라!(오늘 나에게 직면한 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였다/ 오늘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불안, 분노 등)를 의식하고 기도하였다/ 오늘 나 자신이 구원받고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였다)
2. 믿음을 바꾸라!(기도응답 확신이 없는 기도제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다)
3. 꿈을 바꾸라!(하나님이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길 기대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종이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읽어 보았다)
4. 말을 바꾸라!(저울을 보면서 '~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기도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입을 시인하였다/ 나의 언어습관을 의식적으로

62) 오중복음은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서 '성결'을 '성령충만'으로 바꾸고 '축복'을 추가한 것이며, 삼중축복은 '3박자 축복'으로도 불린다.

63) 조용기, 앞의 책, 79쪽.

64) ○: 변화를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1회 이상 실천했다. △: 시도는 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 실천을 잘 하지 못했다.

고치려고 노력하였다/오늘 2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였다)

요컨대 생각, 믿음, 꿈, 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러한 지침에 충실히 따르면 1개월이나 4개월 뒤에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행점검표에는 그가 '바라봄의 믿음 법칙'이라고 부르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 원리의 실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마음속에 소원을 품은 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기도한다.⁶⁵⁾ 즉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빨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은 물러가라!”, “가난은 물러가라!”라고 명령한다.⁶⁶⁾ 질병과 가난의 퇴치를 목표로 한 이러한 시각화(visualization)의 기술과 과거 시제 활용 방식은 《긍정의 힘》에서 등장하는 기법과 유사하다.⁶⁷⁾

조용기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신앙적 자원의 계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여러분은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또는 학업이나 사업이나 그 외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원을 계발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원을 어떻게 계발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⁶⁸⁾

65) 조용기, 앞의 책, 92쪽.

66) 위의 책, 179쪽.

67) 이러한 기술들은 19세기 미국에서 등장한 '신사고 운동'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었다. John S. Haller Jr. and Robert C. Fuller, *The History of New Thought: From Mind Cure to Positive Thinking and the Prosperity Gospel*, Swedenborg Foundation Publishers, 2012.

68) 조용기, 앞의 책(1996), 222쪽.

현세적 물질적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의 자원을 적극 계발하라는 이러한 요청에는 기독교 버전의 자기계발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 관점, 승리의 관점, 그리고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십시오”⁶⁹⁾라는 그의 설교에는 변영신학의 특징인 성공주의와 승리주의가 내재해 있다. 나아가 “같은 종류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깁니다...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가난을 끌어당기게 됩니다”⁷⁰⁾라는 주장에는 주술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앞서 언급한 신비적 자기계발서 《시크릿》에서 강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the law of attraction)’과 상통한다.⁷¹⁾ 물론 조용기는 자신이 제시하는 방법과 여타의 방법(점, 심리치료, 요가, 명상, 마인트콘트롤 등)을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과 ‘사단의 영향을 받은 개인적 욕망’으로 구별하지만,⁷²⁾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통한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현세적 물질적 복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측면에서 조용기는 월킨슨이나 조엘 오스틴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1960, 70년대부터 미국의 변영신학 주장자들 특히 로버트 슈러(Robert Schuller)와 교류하면서 다양한 기법을 수용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4차원의 영성》에 소개된 구체적인 실행점검표는 교회성장 연구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의 후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책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한 변영복음으로서 정교한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스의 기도》나 《긍정의 힘》처럼 이 책 역시 개인의 욕망 달성과 관련된 동기부여(empowerment)의 기술에 초점을 두으로써 연대성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길

69) 위의 책, 169쪽.

70) 위의 책, 90쪽.

71) 톤다 번, 앞의 책, 42쪽.

72) 조용기, 앞의 책(1996), 85쪽.

을 차단하는 한편, 무한 경쟁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충실한 복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

4. 《왕의 재정》⁷³⁾

2014년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가 1천만 건에 육박하면서 출판으로 이어진 이 책은 삼시간에 기독교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출판 이후 유명 인사가 된 저자는 교회수련회나 부흥회 강사 섭외 1순위 대상으로 부상했다.⁷⁴⁾ 저자는 젊은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빛을 진 채무자로 추락하였다. 그런데 몇 년만에 수십 억에 이르는 빛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아니라 사업 재계에 성공하였다. 이 기적적인 이야기가 간증 형식으로 유튜브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교계의 스타가 된 인물이다.

‘왕의 재정’이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재정관리를 의미한다.⁷⁵⁾ 따라서 이 책은 기독교인이 재물과 부에 대해 지녀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는 안내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저자는 부와 관련하여 사람을 네 유형으로 나눈다. 속부(俗富), 속빈(俗貧), 성부(聖富), 성빈(聖貧)이다. 속부와 속빈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각각 뜻한다. 성부는 거룩한 부자, 성빈은 거룩하게 사는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 성빈의 경우 ‘하나님나라’를 위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로서 목사,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등을 가리키는데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가 걸어야 하는 길은 성부의 삶

73) 김미진, 《왕의 재정》, 규장, 2014.

74) 허영진, 〈돈·결혼·개인 삶 선택, '여전한' 한국교회 책 읽기〉, 《뉴스앤조이》, 2015.6.23.

75) 하나님을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여기고 예수를 최고의 CEO로 간주하는 책들도 이러한 흐름에 속한다. T.D. Jakes, *The Great Investment: Faith, Family, and Finance*, Penguin Publishing Group, 2002;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조용만 옮김, 상상북스, 2002.; Laurie Beth Jones, *Jesus CEO: Using Ancient Wisdom for Visionary Leadership*, New York and Boston: Hachette Books, 1996; 《최고경영자 예수(JESUS CEO)》, 송경근 옮김, 한언, 2005.

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성부의 길에 관해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성부론’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언급하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3천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재물이 중요함을 역설한다.⁷⁶⁾ 특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누가복음 16장)와 므나의 비유(누가복음 19장)를 근거로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의 사용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부가 될 수 있는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성서 구절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시편 2:8)다. 저자는 이 구절의 의미를 ‘약속’과 ‘유업’과 ‘소유’의 관계로 풀이한다. 즉 하나님의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야 한다. 이때 유업은 현재의 시점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소유는 미래에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모범적 사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의 미래에 약속이 이루어져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약속→유업→소유의 도식이 기독교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⁷⁾

이와 관련하여 부의 공식을 소개한다. “너는 자연세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내가 초자연세계에서 재물을 움직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 $0 \times 1 \text{억} = 0$ ”과 “ $1 \times 1 \text{억} = 1 \text{억}$ ”이라는 수학 공식을 제시한다. 전자는 하나님이 1억의 일을 내게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1

76) 김미진 앞의 책, 19쪽.

77) 위의 책, 296-297쪽.

역 원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다.⁷⁸⁾

이러한 부의 공식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이른바 ‘배가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이 은행장으로 계신 ‘하늘은행’은 하나님나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성도들에게 30배(3000%), 60배(6000%), 100배(10000%)의 놀라운 이자로 되돌려 준다. 이러한 ‘이자율의 비밀’의 근거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마가복음 4장)다. 이 비유에서 땅은 마음인데 ‘좋은 땅’(하나님나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이자율로 갚아 준다.⁷⁹⁾ 이 맥락에서 십일조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가장 중요한 ‘씨’가 십일조이기 때문이다. 즉 십일조는 배가의 법칙에 따라 놀라운 보답을 가져오는 ‘종자돈(seed money)’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이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궁핍하게 사는 사람은 적게 심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⁸⁰⁾ 따라서 현재 삶이 궁핍하다면 “씨를 먹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온전한 씨’로 십일조를 하나님의 전에 심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궁핍한 삶에서 당신을 건질 것이라고 말한다.⁸¹⁾

이 책은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으로 부지런함과 같은 덕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축복들이 제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성부, 성빈 되게 하소서”와 같은 기도문을 제시한다. 나아가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잘될 것이다. 나의 앞날은 형통할 것이다”와 같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성부의 길을 걸을 것을 강조한다.

78) 위의 책, 278쪽.

79) 이택환,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이자율이 3000%?〉, 《뉴스앤조이》, 2014.2.5.

80) 김미진, 앞의 책, 14-15쪽.

81) 위의 책, 304쪽.

이처럼 이 책은 '성부'라는 이름하에 부에 대한 긍정적 태도만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되는 배가의 원칙과 같은 것은 번영복음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다. 미국 번영복음의 대변자인 케네스 해긴(Kenneth E Hagin)은 “하나님께서서는 돈을 드린 것에 대해 돈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십분의 일을 내면 내가 땅위의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⁸²⁾라고 하면서 이른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설파하였다. 물론 이러한 법칙에 따르는 신은 “자판기의 하나님(The Vending Machine God)⁸³⁾이 된다.

그러면 성부론은 개신교인의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에서 살펴본 세 텍스트처럼 성부론도 개인의 신앙과 부의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왕의 재정》에서 제시한 방법을 열심히 실천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 재물로 하나님나라의 건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성부론은 복지사회 건설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부론에서 말하는 하나님나라의 건설은 사회정의의 실현보다는 개종자의 수를 늘리는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자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NCMN(Nations-Changer Movement & Network)라는 단체가 개종주의적 선교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컨대 성부론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 불평등의 심화나 양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보다는 개인 차원의 부의 축적과 그것을 통한 기독교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번영복음의 한 흐름으로 존재하는 성부론은 신자유주의와 친화성을 지니면서 개신교 공간의 사회복지 담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할

82) Kenneth E Hagin,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Rhema Bible Church, 2000; (마이더스 터치: 성경적 부요함에 관한 균형잡힌 가르침), 김진호 옮김, 믿음의 말씀사, 2003, 95쪽.

83) 류장현 앞의 글, 13쪽.

수 있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힘이 충돌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는 독특한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체제하에서 등장한 핵심 구호가 '생산적 복지' 혹은 '노동 복지'였는데 이러한 복지 개념은 경쟁력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호명하였다. 종교 공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공명하면서 자기계발 붐이 일어났는데 특히 개신교 공간에서는 '신비적 자기계발'에 속하는 변영복음이 부상하였다.

부의 복음(Gospel of Wealth), 건강과 부의 복음(Health-Wealth Gospel),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변영복음은 19세기말 20세기 초 미국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신사고 운동(New Thought movement) 및 오순절신앙(Pentecostalism)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개신교 복음주의의 저변을 형성해 왔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기복신앙⁸⁴⁾과 관련을 맺으면서 등장했지만, 좀 더 대중적인 차원의 자기계발 담론과 실천의 형태로 변영복음이 급부상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다.

이 글에서는 변영복음이 개신교의 복지의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기독교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 IMF 사태 이후 베스트셀러에 오른 《아베스의 기도》, 《긍정의 힘》, 《4차원 영성》, 《왕의 재정》을 검토했다. 《아베스

84) 기복신앙이 한국의 종교문화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소박한 형태의 현세구복적 대중 신앙을 가리키는 용어라면, 변영복음은 미국에서 등장한 후 개신교를 매개로 한국 사회에 수용된 것으로서 나름의 체계성과 신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의 기도)는 ‘아베스의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활용하여 부와 사회적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긍정의 힘》은 긍정 이데올로기와 다양한 자기계발 테크놀로지를 통한 현세적 욕망 실현의 길을 제시하며, 《차원 영성》은 생각, 믿음, 꿈, 말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건강과 부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왕의 재정》은 ‘배가의 법칙’과 같은 원리를 활용하여 ‘거룩한 부자(성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텍스트다. 이처럼 네 베스트셀러는 내용과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신자유주의의 장 속에서 번영복음의 충실한 운반자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베스트셀러들을 통해 널리 확산된 번영복음은 한국 개신교의 복지 의식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MF 사태 이후 한국 보수 개신교는 여타 종교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구제사업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은 시혜적 차원의 자선사업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처럼 보수 개신교의 구제사업과 활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배후에는 번영복음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번영복음은 IMF 사태에 의해 초래된 대규모 실업과 빈곤, 양극화의 심화, 노숙자와 자살률의 급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번영복음은 사회적 위기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조적 차원에서 모색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능력에서 찾는다. 요컨대 각자도생의 논리를 취하는 것이다. 주술적 기도나 시각화 작업과 같은 ‘신비적’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통한 심리적 차원의 해결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부의 축적과 성공을 위해 신비적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번영복음의 길’과 연대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의 길’은 양립하기 어렵다. 번영복음은 사회복지의 대립물이자 장애물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복지의 선두 주자로 간주되어

오면서도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개신교가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번영복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_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로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한국 개신교의 타자인식》 등이 있다.

jlee80@naver.com



참고문헌

- 강준민, 2002, 《강청 기도의 능력》, 두란노.
- 고병철, 2011,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종교문화비평》 19호, 종교문화비평학회.
- 공병호, 2002,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북21.
- _____, 2005, 《공병호의》 10대를 위한 자기경영노트: 성공을 준비하는 10대를 위한 자기계발서, 김영사.
- 구본형, 1998,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생각의 나무.
- 권경임 외, 2011, 《사회복지실천과 영적자원》, 신정.
- 권수경, 2019, 《변영복음의 속임수: 변영복음에 대한 성경적, 철학적 비판》, SFC.
- 김미진, 2014, 《왕의 재정》, 규장.
- 김선중, 2015, 〈야베츠의 기도 재고〉, 《Canon&Culture》, 9(2), 한국신학정보연구원.
- 김연명 편, 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복지.
- 김영봉, 2003,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IVP.
- 김홍만, 2003,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 생명의말씀사.
- 박득훈, 2014, 《돈에서 해방된 기독교》, 포이에마.
- 박종삼, 2018, 〈근현대 기독교의 사회복지 발전〉,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제6집.
- 박효진, 2013, 〈논문 분석을 통한 교회사회복지의 연구동향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1호,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 서동진, 2013,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 신광영, 2012,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경제와 사회》 95호, 한울엠플러스.
- 안신, 2013, 〈종교복지실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종교연구》 73호, 한국종교학회.
- 윤용복, 2009, 〈사회복지영역에서의 국가와 종교〉, 《현대 한국의 종교와 정치》, 한국학중

양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 윤홍식, 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숙진, 2010,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기독교의 자기계발 담론: 여성 교인의 주체화 양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호, 한국종교학회.
- 이원석, 2013, 《거대한 사기극: 자기계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북바이북.
- 이정연, 2019, 〈1990년대 강남문화와 상류층의 '신성적 자기계발론': 강남 상류층 교회의 신념(belief) 분석〉, 《사회와 역사》 123호, 한국사회사학회.
- 이혜숙 편저, 2003, 《종교사회복지》, 동국대학교출판부.
- 장석만, 2008, 〈신자유주의와 종교의 위치〉, 《종교문화비평》 13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전명수, 2018, 《좋은 사회로 가는 길: 종교 · 시민사회 · 공공성》, 집문당.
- 정무권 편, 2009,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과복지.
- 정용택, 2017, 〈그들이 교회로 간 까닭은? 박정희 정권기 한국 복지 체제 형성 과정에서 도시 교회의 역할과 기능〉, 《당신들의 신국: 한국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돌베개.
- 정해운, 2004, 《성공학의 역사》, 살림.
- 조영훈, 2002,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김연명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인간과복지.
- 조용기, 1996, 《4차원의 영적 세계》, 서울말씀사.
- _____, 2004,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교회성장연구소.
- 조흥식 외, 2015, 《사회복지개론》(개정4판), 2015.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교를 묻는다》, 청년사.
- Bowler, Kate, 2013, *Blessed: A History of the American Prosperity Gosp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yrne, Rhonda, 2006, *The Secret*, TS Produc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론다 번, 2007, 《시크릿》, 김우열 옮김, 살림출판사.
- Cho, Paul Yonggi, 1979, *The Fourth Dimension*, So. Plainfield, NJ: Bridge

- Publishing, Inc.
- Coelho, Paulo, 1988, *O Alquimista*; 파울로 코엘료, 2001, 《연금술사》, 최정수 옮김, 문학동네.
- Esping-Anderson, Gö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 2006,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형신 외 옮김, 일신사.
- Goodstein, Laurie, 2001, “A Book Spreads the Word: Prayer for Prosperity Works,” *The New York Times*, May 8.
- Hagin, Kenneth E, 2000, *Midas Touch: A Balanced Approach to Biblical Prosperity*, Rhema Bible Church; 케네스 해긴, 2003, 《마이더스 터치: 성경적 부요함에 관한 균형잡힌 가르침》, 김진호 옮김, 믿음의 말씀사.
- Haller Jr, John S. and Robert C. Fuller, 2012, *The History of New Thought: From Mind Cure to Positive Thinking and the Prosperity Gospel*, West Chester, Pennsylvania: Swedenborg Foundation Publishers.
- Jakes, T.D. 2002, *The Great Investment: Balancing Faith, Family, and Finance to Build a Rich Spiritual Life*, Penguin Publishing Group; T.D. 제이크스, 2002,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조용만 옮김, 상상북스.
- Jones, Laurie Beth, 1996, *Jesus CEO: Using Ancient Wisdom for Visionary Leadership*, New York and Boston: Hachette Books; 로리 베스 존스, 2005, 《최고 경영자 예수(JESUS CEO)》, 송경근 옮김, 한언.
- Kiyosaki, Robert T. and Sharon L. Lechter, 1997, *Rich dad poor dad: What the Rich Teach Their Kids about Money*, Warner Business Books; 로버트 기요사키, 2000,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형선호 옮김, 황금가지.
- Kuffel, Dick, 2002, “Book Review: The Prayer of Jabez,” *Critical Issues Commentary*, Issue 72, September/October.
- Osteen, Joel, 2004, *Your Best Life Now: 7 Steps to Living at Your Full Potential*, New

- York: Warner Faith; 조엘 오스틴, 2005,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두란노.
- Song, Jesook, 2009, *South Koreans in the Debt Crisis: The Creation of a Neoliberal Welfare Societ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송제숙, 2016, 《복지의 배신》, 추선영 옮김, 이후.
- Warren, Rick,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릭 워렌, 2003,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옮김, 디모데.
- Wilkinson, Bruce H, 2000, *The Prayer of Jabez: Break Through to the Blessed Life*, Multnomah Publishers, Inc.,; 브루스 월킨슨, 2001, 《야베스의 기도》, 마영례 옮김, 디모데.
- _____, 2005, *Beyond Jabez*, Multnomah Publishers, Inc.,; 브루스 월킨슨, 2005, 《야베스의 기도, 그 후》, 마영례 옮김, 디모데.
- 税所弘, 2001, 《100日で「朝型人間」になれる方法》, 講談社; 사이쇼 히로시, 2003,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최현숙 옮김, 한스미디어.

국문초록

이 논문은 IMF 사태 이후 한국 개신교 공간에서 등장한 번영복음이 개신교의 복지 의식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미쳤는가를 규명한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자기계발이 권장되고 개신교 공간에서는 '신비적 자기계발'에 속하는 번영복음이 부상하였다. 번영복음을 운반한 대표적인 자기계발 서적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아베스의 기도》, 《공정의 힘》, 《4차원 영성》, 《왕의 재정》이다. 《아베스의 기도》는 '아베스의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활용하여 부와 사회적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공정의 힘》은 긍정 이데올로기를 통한 현실적 욕망 실현의 길을 제시하며, 《4차원 영성》은 생각, 믿음, 꿈, 말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건강과 부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왕의 재정》은 '배가의 법칙'을 활용하여 '거룩한 부자(성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텍스트다.

IMF 사태 이후 한국 보수 개신교는 다양한 형태의 구제사업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시혜적 차원의 자선사업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구제사업과 활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배후에는 번영복음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번영복음은 IMF 사태에 의해 초래된 대규모 실업과 빈곤, 양극화의 심화, 노숙자와 자살률의 급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번영복음은 사회적 위기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조적 차원에서 모색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능력에서 찾는다. 요컨대 각 자도생의 논리를 취하는 것이다. 주술적 기도나 시각화 작업과 같은 '신비적'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통한 심리적 차원의 해결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부의 축적과 성공을 위해 신비적 자기계발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번영복음의 길'과 연대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

로 하는 ‘사회복지의 길’은 양립하기 어렵다. 번영복음은 사회복지의 대립물이자 장애물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복지의 선두 주자로 간주되어 오면서도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개신교가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번영복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개신교, 사회복지, 번영복음, 자기계발, 신자유주의, 자기 테크놀로지, 외환위기

Self-Help and Social Welfare in Neo-liberal Age: A Focus on the Prosperity Gospel in Korean Protestantism

Lee, Jin Gu

The Korea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The paper examines how the Prosperity Gospel that emerged after the IMF crisis had an impact on Korean Protestant view of social welfare. The emergence of a “neoliberal welfare state” in late 1990s encouraged self-help movement at the whole social level in Korea, and in Protestantism, the Prosperity Gospel in the form of “mystical self-help movement” has emerged. The best-selling self-help books that carried the Prosperity Gospel were four books, that is, *The Prayer of Yabez*, *Your Best Life Now*, *The Fourth Dimension*, and *King's Finance*. *The Prayer of Yabez* recommends ‘The Prayer of Yabez’ as a kind of spell to get wealth and social success. *Your Best Life Now* presents a path to worldly success through positive ideology. *The Fourth Dimension* teaches how to get health and wealth through the self technologies that change thoughts, beliefs, dreams and words. *King's Finance* teaches the way to become a rich man by using the law of doubling.

Since the IMF crisis, Korea's conservative Protestant Church has participated in various forms of relief and volunteer work, but has been estimated for staying on a level of charity. The Prosperity Gospel is a main factor which prevents them from going beyond the charity dimension. This is because the Prosperity Gospel tends to approach serious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and poverty, deepening polarization, and a surge in

homelessness and suicide rates, not on a social level but on a personal level. The Prosperity Gospel seek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social crisis and suffering from individual abilities rather than from structural dimensions. A case in point is the resolution of the psychological dimension through the technology of “mysterious” self-help, such as magical prayer and visualization.

The road of Prosperity Gospel based on the technology of mystical self-help is incompatible to the road of Social Welf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n other words, the Prosperity Gospel is an obstacle to social welfare. Therefore, Korean Protestantism must firstly be liberated from the prosperity gospel in order to move forward on the path for th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Key Words: Protestantism, social welfare, Prosperity Gospel, self-help, neo-liberalism, the technologies of the self, the IMF crisis

투 고 알: 2020. 01. 15.

심 사 알: 2020. 02. 27.

계재결정알: 2020. 03. 09.